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문 지 현(Ji-Hyun Moon)*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中國分類主題詞表』 한·일 관련
주제명의 특성 분석 |
|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 |
| 2. 선행연구 | 2. 일본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 |
| II.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 및
특성 | 3. 한·일 관련 주제명의 비교 분석 |
| 1.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 | IV. 결론 |
| 2. 『中國分類主題詞表』 특성 | |

초 록

이 연구는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주제명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은 고유명을 포함하여 총 215개로, 일본관련 주제명표목과 비교하였을 때 주제명 수나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가명칭을 '朝鮮'으로 표기한 점이나,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역사에만 수록하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관련 주제명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과 같이 복잡했던 중·일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주제명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키워드: 중국분류주제사표, 주제명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after extracting the subject titles related to Korea and Japan from the second version of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the number of title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ubject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otal number of Korea-related titles including proper nouns was 215, which is limited in comparison to that of Japan, in terms of the number and diversity of the subjects. Particularly, the CCT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Korea as it uses the word 'Josun' to denote Korea and calls Korean War 'Josun War' as well as only recording it in North Korean history. Meanwhile, Japan-related subject titles include many that show the complicated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such as Manchurian Incident and Japan-China War.

Keywords: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CCT, Subject Heading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8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2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주제명표목표는 온라인 목록 및 검색환경 속에서 색인자와 이용자가 사용한 자연언어를 각각 색인작성과 검색에 사용할 통제어휘로 번역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색인어 부여 시 일관성을 보증하고 용어간의 의미관계를 지시하며, 문헌의 탐색시 탐색보조도구가 된다. 즉, 주제명표목표는 문헌의 주제와 내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일화하고 선정된 용어들간의 관계를 체계화한 통제어휘표이며, 미국의 *LCSH*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특성에 맞게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존의 분류표와 주제명표목표를 통합한 새로운 형식의 『中國分類主題詞表』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5년에 발행된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은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정보검색 도구로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영역의 학문과 주제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분류작업과 주제명작업을 별개로 수행하였던 기존의 색인방식을 탈피하고 분류 및 주제명작업을 동시에 실현하게 함으로써 문헌색인의 질을 제고하고 색인의 난이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 연구는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주제명표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分類主題詞表』와 관련문헌 분석을 통해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주제명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한다. 한·일관련 주제명은 제1권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2책)와 제2권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4책)로 구성된 인쇄판을 전면 검토하여 추출하되, 『中國分類主題詞表』 Web판에서 'Korea', 'Korean', 'Japan', 'Japanese', '朝鮮', '韓國', '日本' 등의 용어들로 검색·보완함으로써 해당 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일관련 주제명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국관련 주제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참고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簡體字는 우리가 쓰고 있는 正字(繁體字)로 모두 변환하여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말 번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 중 한·일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와 『中國分類主題詞表』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im은 LCSH 제12판의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였는데,¹⁾ 이는 LCSH에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영귀는 주제명표목표로서 LCSH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LCSH 제18판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²⁾ 윤정옥은 LCSH 제20판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주제 분포와 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³⁾ 남태우 등은 LCSH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의 '독도'의 명칭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한·미·일 지명위원회 및 KDC, LCC, NDC 등의 표준분류체계내의 독도 기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⁴⁾ 정연경(2010)은 주제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분석하면서 '독도'의 표기문제를 분석하였다.⁵⁾ 김정현은 LCSH 초판부터 제31판을 대상으로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⁶⁾ 이상의 LCSH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도 문지현과 김정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중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수와 주제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후, NDLSH의 한국관련 주제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⁷⁾

다음으로 『中國分類主題詞表』에 대한 연구로서, Zhang은 가장 포괄적인 색인검색도구로서 *Chinese Thesaurus(CT: 漢語主題詞表)*와 *Chinese Classified Thesaurus(CCT: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검토하였다.⁸⁾ 국내에서는 최석두가 『中國分類主題詞表』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의 설계사상과 특징을 분석한 후,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형식과 구조를 설명하였다.⁹⁾

1) Joy Kim,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0).

2)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3)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4) 남태우 등,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pp.291-310.

5) 정연경,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pp.51-72.

6)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147-169.

7) 문지현, 김정현,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247-267.

8) Wenxian Zhang, "The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Chinese Thesaurus for Subject Indexing,"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Vol.36, No.1(Mar. 2004), pp.47-54.

9) 최석두,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형식과 구조," *國會圖書館報*, 제39권, 제6호(2002), pp.29-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제명표목표의 한국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LCSH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본의 NDLSH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中國分類主題詞表』 대한 연구도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 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을 뿐, 특정 국가와 관련된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 및 특성

1. 『中國分類主題詞表』의 발전과정

중국에서는 1975년 “748공정”이 가동됨에 따라 정보검색 영역에서 컴퓨터를 응용하는 문제가 당시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계획의 한 항목으로 중국 최초의 주제명표목표인 『漢語主題詞表(Chinese Subject Thesaurus)』가 1979년 8권 10분책의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수록된 주제명은 표목(正式主題詞) 91,158개와 참조어(非正式主題詞) 17,410개를 포함하여 총 108,568개로, 『漢語主題詞表』는 중국 정보검색 언어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모든 학문분야와 전문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과거 모든 학문과 전문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격의 주제명표목표 편찬이 불가능하다는 전통학설을 타파하였으며, 주제명표목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주제명표목표 편찬기술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통합·활용하였기에 이후 각종 전문 주제명표목표 편찬 사업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까지 출판된 약 100여종의 각종 주제명표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분류와 주제명 작업이 통합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0년 이래 중국의 도서관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편찬은 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과물중의 하나이다. 『中國分類主題詞表』 초판은 북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중국의 도서관계와 정보계가 협력한 거대한 사업으로 1986년에 시작하여 8년 후인 1994년에 완성되었다. 분류 類目 5만여 항목, 주제어 및 주제어군 21만여 항목이 수록되었다.

『中國分類主題詞表』는 중국의 대표적인 분류법인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과 전술한 『漢語主題詞表』를 통합한 정보검색 도구로, 분류표와 주제명표목표를 통합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첫째, 분류작업과 주제명작업을 동시에 완성할 수 있어 색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색인 작업자의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 둘째, 분류검색시스템과 주제검색시스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상호보완시킴으로써 검색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中國分類主題詞表』가 직접 분류목록이나 주제목록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중 한 가지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기본이 되고 있는 분류목록에 주제목록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¹⁰⁾

초판에 대한 개정작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온라인 목록 환경으로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인한 기계가독형 주제명표목표 편찬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 개정판(제4판)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등이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이 인쇄판과 전자판의 형식으로 동시에 간행되었으며, 중국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유료이용자에 한해 『中國分類主題詞表』 Web판의 검색도 가능하다.

2. 『中國分類主題詞表』 특성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은 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은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2책)이고, 제2권은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4책)이다.

가.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

제1권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 부분은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제4판)(『中國圖書資料分類法』포함)을 기본으로 『漢語主題詞表』의 주제어 및 새로 추가한 주제어를 상응하는 유목 아래에 대응시킨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 예시와 같이 페이지를 좌우로 반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 ① 왼쪽 칼럼: 분류기호, 유명(類名), 유목주석(類目註釋) 및 보조표를 기술하고, 기술형식은 분류표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 ② 오른쪽 칼럼: 대응 주제어, 주제어군, 주석을 기술한다. 제1단락은 유명과 대응되는 주제어 및 주제어군(고딕체)으로 유명서술(類名敘述)에 따라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 제2단락은 유목주석에 대응되는 주제어, 주제어군 그리고 해당 유명에 속한 기타 주제어들로 한어병음 어순에 따라 배열된다.

C933 指導學 指導哲學, 指導心理學 등.	指導學; 指導學\哲學 指導; 指導思惟學; 指導系統; 指導心理學; 指導行爲 理論; 指導能力; 指導行爲; 指導者
[O511+.3] 超導材料 TM26으로 분류.	[超導材料] [超導化合物]; [超導體]
R543 血管疾病 雷諾氏(Raynaud)病은 R747.3으로 분류; 紅斑性肢痛症은 R747.4로 분류.	血管疾病 血栓栓塞; 血栓形成; 局部缺血; 庫欣綜合征

10) 中國分類主題詞表, 第2版(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pp.1-2.

한편,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에서 사용되는 기호로는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 분류기호에 「中國圖書資料分類法」 기호가 확충 세분되었음을 나타내는 덧셈기호(+), 주제어를 교체 표시할 때 사용되는 각괄호([]), 개념의 교차·한정·도치관계에 있는 주제어 간의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역슬래시(\), 하나의 주제어가 여러 개의 분류군에 대응될 때, 비주요 유명에 대응된 주제어임을 표시하는 쌍수직선(||) 등이다. 초판에서 사용된 콜론(:), 하이픈(-), 쉼표(.), 삼각부호(△) 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나.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

제2권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는 「漢語主題詞表」를 기본으로 주제어군(전조합형식의 주제어를 일컬음)을 추가한 후,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의 모든 분류기호를 해당 주제어나 주제어군에 대응시킨 것이다. 단일 주제어의 경우 한어병음·주제어·주석·영문번역명·분류기호 및 각종 참조항목으로 구성되며, 인쇄판에는 한어병음과 영문번역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조항목은 D(代), Y(用), Z(族), C(參) 등이 사용되는데, D는 참조어를, Y는 표목을 각각 표시하고 있어 시소러스 형식의 UF 및 USE기능에 해당된다. Z는 계층관계를 갖는 하나의 단어족 중 개념의 외연이 가장 큰 최상위 주제명을 나타내며, C는 연관관계에 있는 주제명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계층수준을 가운데점(·)으로 표시하여 하위개념의 깊이에 따라 점의 개수를 추가하고 있으며, 원문자 ①에서 ⑨까지는 분류기호에 추가되는 보조표의 종류를 나타낸다. 복합 주제어에 해당되는 주제어군의 경우 대응항목은 한어병음·주제어·주석·분류기호 등이 기술되지만,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조항목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권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에는 인명, 단체기관명, 표제 등의 주제어와 전조합 형식의 주제어군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주제어-분류기호 형식〉			〈주제어군-분류기호 형식〉
shu fa 書法 Calligraphy J29 D 書法藝術 Z 美術 · 法書 ·· 草書 C 永字八法	shu fa pi ping 書法批評 Y 書法評論 ----- shu fa ping lun 書法評論 Calligraphic review J29 D 書法批評 D 書法欣賞	shu hua jia 書畫家 Calligrapher and painter J203 : K825.72⑤	shu fa zhong guo 書法\中國 J292

Ⅲ. 『中國分類主題詞表』 한·일 관련 주제명의 특성 분석

『中國分類主題詞表』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전체 주제명의 수와 개략적인 주제별 현황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주제별 구분은 전체 지식을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모택동사상,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종합성 도서 등 5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22개의 주제로 전개하고 있는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주제별 유사성 및 주제명 수에 따라 임의적으로 군집화 하였다. 두 개 이상의 주제 분야에 관련된 주제명은 보다 근접된 주제에 포함시켰으며, 참조어의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표목과 참조어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포함시켰다. 또한 인명·단체명·표제 등은 지역명·사건명·개념어 등의 주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집계하였으며 표에서는 '고유명'으로 표시하였다.

1.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

『中國分類主題詞表』에서 한국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명 130개, 인명 85개를 포함하여 전체 215개이다. 전체 주제명표목 수에서 주제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며, 인명으로 집계된 85개중에는 6개의 표제가 포함되어 있다.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법률·군사와 역사 분야가 각각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많은 주제명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문학·예술분야는 주제명보다는 인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 철학, 종교

한국의 철학관련 주제명은 주제명 8개, 인명 17개, 표제 1개를 포함하여 모두 26개가 'B312 朝鮮哲學'에 대응되어 있다. 이 중 주제명은 '實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명 '朝鮮'을 세목으로 하여 조합된 주제어군으로, '思想家', '思想史', '哲學', '哲學家', '哲學理論', '哲學史', '哲學思想' 등 철학과 관련된 일반 주제어에 조합된 형태이다. 또한 전자관에 수록된 철학자는 최한기, 최제우, 정약용, 홍대용, 김인후, 김시습, 이항, 이익, 이수광, 이이, 이언적, 임성주, 송시열, 서경덕, 윤전(윤휴), 조광조, 정도전 등 총 17명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철학자임을 주석으로 지시하고 있다. 표제 '〈退溪全書〉'는 저자인 '이항'과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李滉(1501-1570)
朝鮮李朝哲學家, 詩人, 朱子學派的主要代表
B312 : |K833/837②9|
D 李退溪
C 〈退溪全書〉

〈표 1〉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판의 한·일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현황

주제별 구분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		주제명표목 수							
		한국				일본			
		주제명	고유명	소계(%)		주제명	고유명	소계(%)	
A. 사상	철학	8	18	26	26(12.1)	13	20	33	79(12.8)
B. 철학·종교	종교					32	14	46	
C. 사회 D. 정치·법률 E. 군사	정치	8	14	22	60(27.9)	20	47	67	136(22.1)
	외교	18		18		36	3	39	
	법률		1	1			1	1	
군사	17	2	19	7		22	29		
F. 경제	경제		5	5	9(4.2)	8	90	98	122(19.8)
G. 문화	문화·교육·체육	1	3	4		6	18	24	
H. 언어 I. 문학 J. 예술	언어	3	2	5	28(13.0)	6	7	13	87(14.1)
	문학		16	16		4	34	38	
	예술		7	7		6	30	36	
K. 역사·지리	역사	43	11	54	60(27.9)	66	26	92	111(18.0)
	지리		6	6			19	19	
N-Q. 자연과학	해양학·자연지리	4		4	12(5.6)	3		3	31(5.0)
	동식물·농업	8		8		18	2	20	
	의학·위생					7	1	8	
R-X. 기술	공업·교통	1		1	1(0.5)	1	30	31	31(5.0)
보조표	지역·민족구분	19		19	19(8.8)	19		19	19(3.1)
합계		130	85	215(100%)		252	364	616(100%)	

나. 정치, 법률, 군사

정치관련 분야는 주제명 8개, 인명 14개 등 22개가 수록되어 있다. 인명으로는 중국내 사회주의 항일운동가인 '李鐵夫'와 '周文彬', 연변조선족자치주 창시자로 알려진 '朱德海' 등이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정치에 대응 수록되어 있으며, '金日成', '朴成哲', '金聖愛' 등 북한의 대표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인물은 D73/77(각국정치)에 수록되어 있는데, 독립운동가 '安重根'과 '金九' 이외에 '金大中', '金斗煥' 등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으나 역대 모든 대통령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주제명으로는 '朝鮮勞動黨', '朝鮮職業總同盟',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朝鮮民主婦女同盟' 등 북한공산당 관련조직과 '兩班(朝鮮)', '七·四南北聯合聲明(朝鮮)(1972)', '金大中事件' 등 한국관련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 정치사건으로 '抗美援朝運動'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란 뜻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식 정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제명 18(참조어 2개 포함)개가 수록된 외교분야는 대부분 한국전쟁과 대외관계 및 조약 관련 주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주제명으로는 '日內瓦會議(1954)-제네바회의', '聯

合國韓國統一復興委員會’, ‘朝鮮中立國監察委員會(1953-)’, ‘朝鮮停戰談判’, ‘朝鮮停戰協定(1953)’ 등이 있고 이중 ‘朝鮮停戰談判’은 참조어로 ‘板門店談判’을 두고 있다. 대외관계 주제명으로는 ‘日韓基本關係條約(1965)’의 한일관계, ‘朝鮮自主和平統一三原則(1972)’, ‘朝鮮問題’ 등 남북관계 그리고 ‘美韓共同防禦條約(1953)’ 등이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中朝關係’,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1961)’, ‘朝蘇友好合作互助條約(1961)’, ‘朝日關係’ 등도 있다. 또한 조선시대 체결된 ‘漢城條約(1885)’, ‘仁川條約’, ‘俄朝條約(1884)(조아통상조약)’ 등도 각국외교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편, 법률에 포함된 한국관련 주제명은 법률인 ‘李丙晷’ 1명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관련 한국 주제명은 인명 2개, 주제명 17(참조어 3개 포함)로 총 19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전쟁과 관련된 주제어들이다. 먼저 軍事史 일반에 ‘朝鮮軍事停戰委員會(1953-)’가 있으며, 앞서 중국정치 분야에서 언급한 ‘抗美援朝運動’의 구체적인 전쟁 관련 주제어들 즉, ‘抗美援朝戰爭’, ‘抗美援朝戰爭戰役戰鬥’, ‘抗美援朝五次戰役’(하위에 5개 개별전투를 수록), ‘上甘嶺戰役(1952)’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3/7(各國軍事)에는 ‘李舜臣’과 ‘梁世鳳’ 등 인명과 ‘美國侵朝戰爭’과 같이 미국과 관련된 한국전쟁 주제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주제어 ‘美國侵朝戰爭’은 하위에 ‘美軍朝鮮肅川·順川空降作戰(1950)-숙천·순천공수작전’, ‘美軍朝鮮汶山空降作戰(1951)-문산공수작전’, ‘美軍仁川登陸(1950)-인천상륙’ 등 구체적인 미군수행 작전을 배열하고 있다.

抗美援朝戰爭戰役戰鬥

- E297.5
- D 金城反擊戰(1953)
- D 抗美援朝陣地作戰(1951)
 - 抗美援朝五次戰役
 - 抗美援朝第二次戰役(1950)
 - 抗美援朝第三次戰役(1950)
 - 抗美援朝第四次戰役(1951)
 - 抗美援朝第五次戰役(1951)
 - 抗美援朝第一次戰役(1950)
 - 上甘嶺戰役(1952)

다. 경제, 문화, 언어, 문학, 예술

한국의 경제 및 문화 관련 주제명은 각각 5개와 4개로, G219.3/7(각국 신문학·신문사업)에 대응 수록된 ‘朝鮮中央通信社’과 ‘跆拳道’ 이외에는 모두 인명이다. 수록된 경제인은 ‘鄭周永’, ‘李秉哲’, ‘金宇中’, ‘朴泰俊’, ‘孫正義’ 등이며, G8(체육)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바둑기사 ‘曹熏鉉’과 ‘李昌鎬’ 등의 인명을 찾아 볼 수 있다.

언어와 관련된 주제명은 우리말을 나타내는 ‘朝鮮語(中國少數民族語言)’, ‘朝鮮語’, ‘諺文’ 등

과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해당되는 ‘〈老乞大〉’와 ‘〈朴通事〉’ 등 모두 5개이다.

문학 관련 주제명도 개념어 없이 표제와 인명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총 16개이다. 표제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소설 ‘〈春香傳〉’과 우리나라 『임진록』을 중국학자가 한문으로 번역한 책인 ‘〈抗倭演義〉’ 2개이다. 인명으로는 신라시대 문필가 ‘崔致遠’을 비롯하여 ‘朴仁老’, ‘李奎報’, ‘朴趾源’, ‘申緯’, ‘尹善道’, ‘申在孝’ 등 조선시대 문인들, 그리고 ‘崔曙海’, ‘韓成’, ‘黃健’, ‘李箕永’, ‘千世峰’, ‘宋影’, ‘趙基天’ 등 북한에서 출생했거나 해방이후 북한에서 활동한 작가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한편, J 예술에 대응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도 모두 인명뿐인데, 회화, 음악, 무용, 영화·비디오아트 등에서 7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화분야에 ‘金弘道’를, 음악분야에는 ‘鄭律成’과 ‘朴堧’을 중국과 각국에 각각 배정하고 있으며, 음악분야는 조선족인 ‘崔美善’이 수록되어 있다. 영화·비디오아트 분야에서는 중국 한류의 대표 연예인이라 할 수 있는 ‘安在旭’과 ‘金喜善’ 그리고 북한의 유명한 희곡작가 ‘趙白嶺(朝鮮)’을 배정하고 있다.

라. 역사, 지리

한국의 역사관련 주제명은 『中國分類主題詞表』 제1권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에서 K(역사 지리)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 역사를 나타내는 K312(朝鮮)에 대부분의 주제명이 대응되어 있다. 먼저 한국역사의 시대구분 분류전개를 살펴보면, 통사를 시작으로 상고-고대-중세-근대와 같이 세계사적 시대구분의 바탕위에서 세분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사로 구분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중세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대사의 경우 남북을 구분하여 각각 ‘韓國史(1945年~)’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史(1945年~)’ 아래 세분전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구별은 근대사의 하위구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K312.43에 ‘金日成領導下的抗日武裝鬪爭(1932~1945年)’을 배정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활동을 혁명전통 근원으로 삼을 만큼 중시하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처사라 할 수 있겠다.

K312.0 通史	歷史\朝鮮
K312.1 上古史	上古史\朝鮮
K312.2 古代史	古代史\朝鮮
K312.3 中世紀史(~1876年)	中世紀史\朝鮮
K312.31 三國(高句麗, 百濟, 新羅, 公元1世紀前後~675年)	中世紀史\朝鮮\三國時代(朝鮮)
K312.32 新羅(675~918年)	中世紀史\朝鮮\新羅(675-918)
K312.33 高麗(918~1392年)	中世紀史\朝鮮\高麗(918-1392)
K312.34 李朝前期(1392~1876年)	中世紀史\朝鮮\李朝(1392-1910)
K312.4 近代史(1876~1945年)	近代史\朝鮮
K312.41 外國資本主義入侵時期(1876~1910年)	近代史\朝鮮\1876-1910
K312.42 日本帝國主義侵佔時期(1910~1945年)	近代史\朝鮮\1910-1945
K312.43 金日成領導下的抗日武裝鬪爭(1932~1945年)	抗日鬪爭\朝鮮\1932-1945
K312.49 第二次世界大戰後朝鮮南北的分裂(1945年~)	近代史\朝鮮\1945-

K312.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史(1945年~)	現代史\朝鮮
K312.51 人民民主改革時期(1945~1950年)	現代史\朝鮮\1945-1950
K312.52 衛國戰爭時期(1950~1953年)	現代史\朝鮮\1950-1953
K312.53 戰後建設時期(1953年~)	現代史\朝鮮\1953-
K312.6 韓國史(1945年~)	歷史\韓國\1945-
K312.61 李承晚當政時期(1948~1961年)	歷史\韓國\1948-1961
K312.62 朝鮮戰爭時期(1950~1953年)	歷史\韓國\1950-1953
K312.63 戰後時期(1953年~)	歷史\韓國\1953-

다음으로 이러한 시대구분 유목에 대응되는 주제명을 살펴보면, 역슬래시(\)를 한 개 이상 사용하여 조합된 주제어군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조합의 기본원칙은 시대명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명인 '朝鮮'을 첨부한 형태이며, 하위유목에 대해서는 왕조명이나 해당 연대를 추가함으로써 조합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K312.43에는 '抗日鬪爭\朝鮮\1932-1945'를 대응시키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조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의 독립운동 및 무장투쟁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주제명(주제어나 주제어군)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불평등한 배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사를 나타내는 주제명의 경우, 북한은 '現代史\朝鮮'으로 배정하고 있어 이전의 역사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나, 한국은 '歷史\韓國\1945-'으로 설정하고 있어 전혀 다른 나라의 역사처럼 간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시대구분 유목에는 이상의 한국역사구분 주제명(주제어군) 이외에도 왕조명, 인명, 역사적인 사건명 등도 대응되어 있다. 먼저 중세기사에는 하위유목에 '高句麗', '三國時代(朝鮮)', '新羅', '高麗', '李朝' 등의 왕조명과 '崔忠獻', '大院君', '李成桂' 등의 왕조인물 그리고 임진왜란의 중국식 지칭인 '壬辰衛國戰爭(1592-1598)'과 '實學派' 등의 주제명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중세기사에 수록된 주제명은 주제어군을 포함하여 총 15개이다. 다음으로 근대사에는 '金玉均', '全瑋準', '朴殷植' 등 3명의 인명과 '朝鮮甲午農民戰爭(1894-1895)', '甲申政變(1884)', '三一運動(1919)', '朝鮮獨立同盟' 등 4건의 사건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 '朝鮮甲午農民戰爭(1894-1895)'은 '東學道起義(1894-1895)'를 참조어로, '全瑋準'과는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근대사에 수록된 주제명은 주제어군과 참조어를 포함하여 13개이다.

남북의 현대사에 대응되는 주제어군 이외의 주제명은 '朝鮮戰爭(1950-1953)'과 '朴正熙' 2개로, 특히 '朝鮮戰爭(1950-1953)'은 대표적인 북한 위주의 주제명 수록 행태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간에 발생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사인 K312.52에만 대응 수록하고 있으며,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에도 '朝鮮戰爭(1950-1953)'을 K312.52로만 설정하고 있다. 참조어로 설정된 '朝鮮祖國解放戰爭(1950-1953)'과 '侵朝戰爭(1950-1953)'이나 연관관계의 여러 주제명들도 모두 그러한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朝鮮戰爭(1950-1953)
 Korean war
 K312.52
 D 朝鮮祖國解放戰爭(1950-1953)
 D 侵朝戰爭(1950-1953)
 C 朝鮮問題
 C 抗美援朝運動
 C 抗美援朝戰爭
 C 美國侵朝戰爭

이외에도 역사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각국 사학사에 ‘安鼎福’과 ‘金俊燁’을, 중국사 아래 ‘抗倭援朝戰爭’, ‘間島問題’, ‘李紅光(1910-1935)’, ‘渤海(古族名)’, ‘渤海國’ 등을, 그리고 민족사지 및 지방사지 아래 ‘民族歷史\朝鮮’, ‘民族志\朝鮮’, ‘朝鮮人’, ‘地方史\朝鮮’, ‘地方志\朝鮮’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을 ‘抗倭援朝戰爭’로 표현하거나 발해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설정하는 점은 철저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사관련 주제명은 지리와 전기분야로, K833/837(각국인물전기)에는 북한의 ‘崔庸健’과 ‘金一’을 포함하여 ‘洪范圖’, ‘李承晚’, ‘安尙秀’ 등 5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전기의 중국 표류기인 ‘〈漂海錄〉’은 중국지리에 대응 수록되어 있다.

마. 자연과학, 기술

해양학과 자연지리 아래 한국관련 주제명으로 ‘朝鮮海峽’(대한해협)과 ‘圖們江’(두만강), ‘鴨綠江’(압록강), ‘長白山’(백두산)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朝鮮海峽’은 해양학의 하위분류 항목인 ‘P722.3 日本海’에 대응된 기타 주제어들 중 하나로서, ‘對馬海峽(쓰시마해협)’과 함께 주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두만강과 압록강, 백두산은 중국식 명칭으로 수록하고 있다.

P722.3 日本海

日本海
 朝鮮海峽：對馬海峽：衝繩海槽

식물로는 조선계(영경귀식물), 장백낙엽송, 조선낙엽송, 조선송, 물황철나무 등이 각각 ‘朝鮮薊’, ‘長白落葉松’, ‘黃花松’, ‘紅松’, ‘香楊’ 등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식물들은 원산지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주제어나 참조어에 ‘朝鮮’이나 ‘長白’과 같이 국가명이나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관련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실제 ‘黃花松’은 ‘朝鮮落葉松’을, ‘紅松’은 ‘朝鮮松’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으며, ‘香楊’의 영어명칭은 ‘Populus koreana’이다. 공업기술에는 ‘長鼓’가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주석을 통해 조선과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타악기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바. 보조표

보조표에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은 대부분 세계지역구분표(二)의 312(朝鮮) 아래 수록되어 있다. 먼저 312에 '朝鮮'과 '朝鮮半島'가 대응되고 있고, 하위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국명과 일부 도시명을 수록하고 있다. 즉, 북한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平壤', '新義州', '元山', '開城' 등이, 남한은 '韓國', '大丘(大邱의 잘못된 표기)', '釜山', '公州', '漢城', '慶州', '仁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주제명 '韓國'에는 '南朝鮮'이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으며, '開城'은 남한의 도시로 잘못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국지역구분표(三)에 '長白朝鮮族自治縣'과 '延邊'을, 중국민족표(七)에 '朝鮮族'을 수록하고 있다.

2. 일본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

『中國分類主題詞表』에서 일본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명 252개, 인명 364개를 포함하여 전체 616개이며, 전체 항목 수에서 주제명이 차지하는 비율(40%)은 인명(단체명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법률·군사분야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문화가 19.8%, 그리고 역사분야가 18.0%를 차지하고 있다.

가. 철학, 종교

일본의 철학 분야는 주제명 13개, 인명 19개, 표제 1개를 포함하여 모두 33개로, 한국과 같이 'B313 日本哲學'에 대응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철학이 추가세분 없이 단일 유목에 모든 주제어가 대응되는 것과는 달리, 일본철학은 고대철학-봉건시대철학-명치시대철학-현대철학-마르크스주의 철학 등으로 하위 전개하고 이에 해당되는 주제명을 이중조합하거나 인명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古代哲學\日本', '中世紀哲學\日本', '近代哲學\日本\明治時代', '現代哲學\日本', '馬克思主義哲學(마르크스주의철학)\傳播\日本', '馬克思主義哲學\發展\日本' 등으로 시대가 구분된 철학 주제어군을 수록하고 있다.

종교관련 주제명은 개념 주제명 32개, 인명 11개, 단체명 3개로 총 46개이다. 여기에는 일본사회의 고유한 종교로서 흔히 민족종교로 거론되는 '神道教'가 B981에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핵심 주제어 '神道'를 포함하여 '神國', '富士山大神(후지산신전)' 등 관련용어와 '國家神道'와 '神社神道' 및 '黑住教'와 '金光教' 등 신도의 종류 및 여러 교파들 그리고 교주 및 대표적인 학자들까지 총 34개의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다.

神道
 The Way of the gods
 B981
 · 國家神道
 · 教派神道
 .. 黑住教
 .. 天理教
 C 大本教

나. 정치, 외교, 법률, 군사

정치관련 분야는 정치이론, 각국공산당, 부문별공산조직, 각국정치 등의 분류항목에 주제명 20개, 인명(단체명 포함) 47개 등 67개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주제명으로는 ‘日本共產黨’, ‘日本工人黨’, ‘日本青年團協議會’, ‘日本婦女會議’ 등 16개에 이르는 일본 공산당 계파 및 조직과 일본 국가체계를 일컫는 ‘天皇’과 ‘天皇制度’, 그리고 ‘白鳥事件’과 ‘三·一五事件’과 같은 정치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인명으로는 정치이론가 2명, 일본 공산당 주석 및 주요 공산당활동가 8명, 그리고 25명의 역대 수상과 정치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일본의 초대총리대신이었던 ‘伊藤博文’은 ‘安重根’과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D73/77(각국정치)에는 주제명과 인명이외에도 ‘日本防衛廳’과 ‘日本自由黨’과 같은 주요행정기관과 정당도 12개가 수록되어 있다.

외교분야의 주제명은 국제관계, 중국외교, 각국 외교 등의 분류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제명 36개(참조어 6개)와 인명 3개를 포함하여 총 39개이다. 이 중 국제관계에는 ‘日本國際問題研究所’와 산둥문제(중국 山東省을 둘러싼 중일문제)가 논의되었던 ‘華盛頓會議(1921)-워싱턴회의’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외교에는 ‘中日關係’, ‘中日和平友好條約(1978)’, ‘日蔣 “和平條約”(1952)-일본과 장제스간의 조약’, ‘中日山東條約(1922)’ 등 중일간의 문제 및 조약 14개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다단했던 양국의 역사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D83/87(各國外交)에는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舊金山對日和約(1951)-샌프란시스코조약’을 포함하여 ‘日美安全條約(1951)’, ‘日蘇中立條約(1941)’, ‘德日關係’ 등과 같이 미국, 소련, 독일 등 여러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 및 조약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련 주제명은 법률인 1명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군사관련 일본 주제명은 주제명 7개, 인명 22(단체명 10개)개로 총 29개가 수록되어 있다. 주제명으로는 2차대전 이후 연합국의 대(對) 일본 관리위원회를 의미하는 ‘盟國對日管制委員會(1945-1952)’, 만주주둔 일본군이었던 ‘日本關東軍’, 여순항, 인도, 말레이반도, 진주만 등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을 의미하는 ‘日軍對旅順要塞攻堅戰(1904-1905)’, ‘日軍進攻印度伊姆法爾作戰(1944)’, ‘日軍馬來亞登陸作戰’, ‘日軍偷襲珍珠港(1941)’, 그리고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격인 ‘美國對日本廣島·長崎原子突襲(1945)’ 등이 있다. 이외에도 12명의 군사 관련 인물들과 육·

해·공 자위대 및 사관학교를 포함하여 일본방위대학과 일본방위연구소 등이 E3/7(各國軍事)에 수록되어 있다.

華盛頓會議(1921)
Washington conference(1921)
D819
C 山東問題
C 中日山東條約(1922)

다. 경제, 문화, 언어, 문학, 예술

일본의 경제관련 주제명은 경제사상사, 기업경제, 농업경제, 공업경제, 교통운송경제, 무역경제, 재정·금융 등의 다양한 분류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제명 8개, 인명 90(단체명 61개 포함)개로 전체 98개이다. 농업경제에 대응된 주제명은 토지제도인 '班田制(日本)'와 '祿田制度(日本)', 농업의 형태중 하나인 '發達的小農經濟(日本)-선진적소농경제', 그리고 '海外農業(日本)' 등으로 괄호 속에 국가명이 한정된 형태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화폐단위인 엔화와 관련하여 '日元', '集團日元', '日元升值' 등과 '鎖國令(日本)'이 재정·금융과 무역경제에 각각 대응되어 있다. 한편, 90여개에 걸쳐 수록된 인명과 단체명은 각종 협회와 법인체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며, '太平化學工業公司(日本)'처럼 단체명에 국가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명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문화관련 분야는 주제명 6개(참조어 2개 포함)와 인명 18개(단체명 7개 포함)를 포함하여 총 24개가 신문·방송, 문헌학, 교육, 체육 등에 대응 수록되어 있다. 주제명으로는 일본에서 간행된 중국 전적을 의미하는 '和刻本'이 있으며 여기에는 '東洋本'과 '日本本'이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전통 무술로 알려진 유도, 가라데, 스모가 '柔道', '空手道', '相扑' 등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언어분야는 일본어와 관련된 '日語(참조어 日本語)', '日文', '日語課' 등과 일본의 문자인 가나와 한자를 읽는 방법중의 하나인 훈독이 각각 '假名'과 '訓讀'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언어학자 4명과 단체 2개, 그리고 일본 최초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篆隸萬象名義〉'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학관련 주제명은 '日本文學'을 상위어로 '物語文學'과 '俳句'가 계층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物語文學'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학양식인 모노가타리 문학에, '俳句'는 일본 특유의 단시(短詩)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주제명 '抗戰文藝研究'를 포함하여 인명과 표제가 각각 27개와 7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예술 분야는 회화와 연극에서 각각 3개씩의 주제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화에서는 일본화와 대표적인 회화 양식 2종류인 야마토에(Yamatoe) 및 유키요에(Ukiyoe)가 '日本畫', '大和繪',

‘浮世繪’ 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연극예술에서는 일본 전통의 가무극, 인형극, 가면극에 해당되는 ‘歌舞伎’, ‘淨琉璃’, ‘能樂’ 등이 연관관계로 연결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회화, 공예미술, 음악, 영화·비디오 분야 등에서 대표적인 인물 30명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라. 역사, 지리

역사관련 분야는 주제명 66개를 포함하여 총 92개가 사학사(K09), 일본역사(K313), 중국역사(K2) 등에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중·일 양국간의 침략과 투쟁의 역사를 반영이나 하듯이 K2에는 중국의 항일투쟁과 관련하여 시대구분과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抗日鬪爭\中國\1931-1937’, ‘察綏抗日同盟軍’, ‘山東抗日根據地’ 등과 같은 시대구분과 항일단체 및 소규모 전투 등은 모두 제외시키고, 일본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명만을 추출하였다.

먼저 중국사에 수록된 주제명은 14개로, 청일전쟁인 ‘中日甲午戰爭’, 만주사변과 만주국을 지칭하는 ‘九·一八事變’과 ‘偽滿洲國’, 1932년 발발한 중일전쟁인 ‘七·七事變’ 그리고 일본의 패망을 의미하는 ‘日本投降(1945)’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역사에는 한국역사와 비슷하게 시대가 구분된 분류항목에 역슬래시(\)를 사용한 시대구분 주제어군, 독립시대명, 그리고 인명 등이 대응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시대구분은 상고-고대-중세-근현대-제2차세계대전이후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대는 야마토시대(大和時代)부터 헤이안시대(平安時代)까지 다섯 시대로, 막부시대에 해당되는 중세는 가마쿠라막부(鎌倉時代)부터 에도시대(江戶時代)까지 여섯 시대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근현대사의 하위에는 자본주의 발전, 제국주의 시기, 러일전쟁, 일차세계대전, 중일전쟁, 이차세계대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여섯 시기로 세분하고 있다.

K313.0 通史	歷史\日本
K313.1 上古史	上古史\日本中
K313.2 古代史	古代史\日本
K313.21 大和時代(~645年)	古代史\日本\大和時代
...	...
K313.3 中世紀史(1192~1868年)	中世紀史\日本,
...	...
K313.36 江戶時代(1603~1868年)	中世紀史\日本\江戶時代
K313.4 近現代史(1868年~)	近代史\日本; 現代史\日本,
K313.41 資本主義發展時期	近代史\日本\1868-1904,
K313.42 帝國主義時期(1904年~)	近代史\日本\1904-
K313.43 日俄戰爭(1904~1905年)	日俄戰爭
K313.44 日俄戰爭後至第一次世界大戰時期(1905~1918年)	近代史\日本\1905-1918
K313.45 第一次世界大戰後至侵華戰爭前(1918~1937年)	近代史\日本\1918-1937
K313.46 侵華戰爭及第二次世界大戰時期(1937~1945年)	近代史\日本\1937-1945
K313.5 第二次世界大戰後(1945年~)	現代史\日本

각 시대류목에는 위의 예시와 같은 조합된 시대구분(주제어군) 이외에도 ‘室町時代’와 같은 단일 시대명과 ‘聖德太子(Prince Shotoku 572-621)’, ‘豊臣秀吉(Toyotomi Hideyoshi 1536-1598)’, ‘徳川家康(1542-1616)’ 등 대표적인 인물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明治天皇(1852-1912)’과 ‘明治維新(1868)’, 만주침략의 필요성에 대해 황제에게 올린 글인 ‘田中奏折’, 16세기 광신적인 불교종단의 폭동인 ‘一向暴動’, 막부타도운동을 나타내는 ‘倒幕運動(1864-1868)’, 그리고 ‘日本人民反戰運動’ 등 일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어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田中奏折
Memorial of Tanaka Giichi
K313.45
D 大陸政策
D 田中奏章

한편, 민족사지 및 지방사지 아래 ‘民族歷史\日本’, ‘民族志\日本’, ‘地方史\日本’, ‘地方志\日本’ 등과 ‘日本人’과 ‘阿伊努人’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日本人’은 ‘大和民族’과 ‘大和人’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는데, 大和人(아마토 민족)은 현재 일본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阿伊努人(아이누 민족)’은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K09(사학사), K833/837(각국인물전기), K85(문물고고) 등에는 일본 역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일본의 사찰 ‘金閣寺’도 수록되어 있다.

마. 자연과학, 기술

해양학과 자연지리와 관련하여 앞서 한국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722.3 日本海’에 ‘日本海’가 대표 주제어로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 ‘對馬海峽(쓰시마해협)’과 ‘衝繩海槽(오키나와 해조)’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생물과학내에는 ‘日本血吸蟲(주혈흡충)’, ‘日本對蝦(일본새우)’, ‘日本金龜子(일본풍뎅이)’ 등 주제명에 ‘日本’이 부가된 7종의 동물(곤충류 포함)이 수록되어 있으며, R(의학·위생)에는 일본뇌염바이러스와 일본뇌염(병명)을 의미하는 ‘乙型腦炎病毒’과 ‘流行性乙型腦炎’을 포함하여 주제명 7개(참조어 4개 포함)와 인명 1개가 수록되어 있다. S(농업과학)에는 ‘鷄眼草(일본클로버)’, ‘日本柳杉(일본삼나무)’, ‘日本落葉松’, ‘黑松’, ‘日本李’, ‘日本赤松’ 등의 식물류와 일본산 누에 종류인 ‘天蠶’ 그리고 ‘日本沼蝦\病蟲害’, ‘日本對蝦\病蟲害防治’와 같은 주제어군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주제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日本李’, ‘日本赤松’은 ‘李(오얏나무)’와 ‘赤松’의 여러 종류중의 하나로서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기술과학 분야는 ‘清酒’의 참조어로 설정된 ‘日本清酒’ 이외에는 모두 단체명과 인명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日本建築學會’와 ‘日本原子能研究所’와 같이 학회와 연구소가 대부분이다.

바. 보조표

보조표에 수록된 일본관련 주제명은 세계지역구분표(二)내의 191.7(日語語言地區)에 대응되는 '日語\地區'와 313(日本)에 수록된 국명 '日本' 및 도시명을 합쳐 총 19개이다. 지역명에는 '八幡', '北方四島', '北海道', '本州', '長崎', '衝繩', '大阪', '東京', '廣島', '橫濱', '橫須賀', '京都', '九州', '名古屋', '神戶', '四國' 등의 도시명 이외에도 여러 섬으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일컫는 '日本列島'도 수록되어 있다.

3. 한·일 관련 주제명의 비교 분석

앞 절에서 분석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中國分類主題詞表』에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명 130개, 인명 85개를 포함하여 전체 215개로, 일본관련 주제명 616개(주제명 252개, 인명 364개)와 비교하면 35%수준이다. 그러나 전체항목에서 순수주제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일본(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2)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정치·법률·군사와 역사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두 분야의 주제명을 합치면 56%에 이른다. 반면 일본은 정치·법률·군사, 경제·문화, 그리고 역사의 순으로 세 분야의 주제명을 합치면 60%에 이른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일본의 경제인과 단체명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감안한다면, 양국 모두 정치와 역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3) 한국관련 주제명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주제명의 수나 다양성 그리고 주제의 특정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본관련 주제명에서 고유명의 비율이 높은 점이나 중·일간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어는 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철학, 종교, 문학, 예술 분야 등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철학의 경우 상세한 시대구분을 통해 다양한 주제어군을 조합하고 있으며 종교에서도 일본의 민족종교인 '신도교'의 종류 및 교파들에 대한 상세한 항목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학과 예술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양식과 회화 및 연극의 종류들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명만을 수록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 (4)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권 인쇄판에는 인명, 단체기관명, 표제 등의 고유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판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한국의 경우 철학·정치·문학·역사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주로 수록되어 있고 단체명은 북한의 '朝鮮中央通訊社' 하나뿐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주제명의 60%가 고유명 표목으로, 근집화된 주제 중 자연과학과 보조표를 제외한 모든 주제분야에 두루 수록되어 있다. 특히 사업체명이나 공공기관 등 단체명

을 대량으로 수록한 점은 한국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제는 양국 모두 10개 미만의 수준이다.

- (5) 일본관련 주제명에는 한일관계만큼이나 복잡했던 중·일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주제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과 같은 일본의 중국침략을 포함하여 일본에 의해 유발된 각종 사건·사고와 연관된 주제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중국역사의 하위에는 중국의 항일투쟁에 대한 시대구분은 물론 항일단체와 인물 그리고 소규모 전투 등이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 (6) 한국관련 주제명에는 북한과 관련된 주제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김일성', '김성애', '최서해', '이기영' 등 북한의 정치인과 문학가를 비롯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자동맹'과 같은 북한 공산당 조직, 현대사의 경우 남북을 구분하여 세분 전개하는 등 북한 관련 주제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7) 위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주제명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주제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보조표의 세계지리표(2)에서 한국(312)을 지시하는 상위 명칭으로 '조선'과 '조선반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북한과 한국의 정식 국가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에 일어난 한국전쟁의 경우 주제명을 '조선전쟁'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역사인 K312.52에만 대응 수록하고 있다. 참조어로 설정된 '조선조국해방전쟁'이나 '침조전쟁(미국침략전쟁)'도 북한의 시각만을 반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국가를 표기하는 순서에서도 북한과 소련, 일본과의 관계는 '朝日', '朝蘇'로 표기하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는 '日韓', '美韓'로 표기하고 있어 북한위주의 주제명 수록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8) 『中國分類主題詞表』의 개발 당사국인 중국의 입장과 관점을 반영한 주제명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식의 정의인 '항미원조전쟁'의 경우, 중국의 정치사건과 군사분야에 '抗美援朝運動', '抗美援朝戰爭', '抗美援朝戰爭戰役戰鬥' 등과 같은 주제명(참조어를 포함하여 13개)으로 매우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역사의 하위에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식 표현인 '抗倭援朝戰爭'을 수록하거나 '발해'를 중국고대민족사지(K289)에 배정한 점은 철저한 자국 중심의 편성이라 볼 수 있다.
- (9) 일본의 국가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日本'과 'Japan'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과거의 국호인 '朝鮮'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을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이든, 아니면 과거부터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든, 역사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국호를 6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10) 한·중·일 해양 및 자연지리 관련 주제명으로 '대한해협(조선해협)', '두만강', '압록강',

‘장백산’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독도’ 관련 주제명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가운데 ‘대한해협’은 분류유명과 유명 대응 주제어 ‘日本海’의 하위에 ‘朝鮮海峽’, ‘對馬海峽(쓰시마해협)’, ‘衝繩海槽(오키나와 해조)’ 등과 같이 기타 주제어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장백산’은 모두 중국자연지리의 일부로 다루면서 중국식 명칭으로 수록되고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제2권에 수록된 한·일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주제명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中國分類主題詞表』에 수록된 한·일 관련 주제명의 전체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中國分類主題詞表』에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은 양국간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관련 주제명에 비해 주제명의 수나 다양성 그리고 주제의 특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학·종교·문학·예술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어가 극히 적은 형편이다. 더욱이 한국의 국가명칭을 ‘朝鮮’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역사에만 수록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해양학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발해’는 중국의 역사관점에서,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은 중국의 자연지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LCSH를 포함하여 세계 대부분의 주제명표목표는 학문적 체계보다는 문헌적 근거 원칙에 따라 새로운 주제명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中國分類主題詞表』 제2권의 경우에도 중국국가도서관의 도서목록 DB와 중국내 주요 도서관의 간행물 DB내에 수록된 주제어와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제명의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도서관에 한국관련 문헌들이 골고루 수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추이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